

한신 ‘오승환 상품+중계권료’ 노린다

일찌감치 ‘오승환 마케팅’ 왜?

재일교포 많은 오사카 연고…팬층 강화 목표
韓 관광객 흡수…오승환 김치덮밥 등 구상
한국방송사 통해 홈경기 중계권 판매 계획

일본프로야구 한신이 한국의 최강 마무리 오승환(31)을 2년 총액 9억엔(약 95억원)에 잡았다. 2011년 이대호의 오릭스 입단조건(2년 7억엔)을 뛰어넘는 한국 선수의 일본 진출 사례 중 역대 최고대우다. 일본은 한국의 삼성, LG, SK처럼 대기업이 야구단을 운영하지 않는다. 언론사, IT기업, 식음료회사, 철도회사, 금융회사 등 중견기업군이 야구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적자에 초연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 과거 한신은 한국선수 영입전에 뛰어들었다가 금액 문제 탓에 번죽만 올리고 철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랬던 한신이 거금을 들여 오승환을 데려갔다. 투자액 이상의 가치를 발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작용했을 터. 그리고 그 가치는 단순히 야구실력에 국한되지 않고, 마케팅에까지 해당된다.

●한신의 오승환 마케팅 전략

한신의 오승환 마케팅 타깃은 한국인이거나 재일교포 팬층을 확대하는 데 집중돼있다. 한신의 홈인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다. 한국의 부산처럼 기질적으로 화끈하고, 야구에 열광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한신의 홈 관중은 3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다시 300만 관중을 넘어서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적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9시즌 동안 277세이브를 올린 오승환

을 영입해 뒷문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오사카는 일본 내 가장 많은 재일교포가 살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팬들은 오직 오승환만을 위해 고시엔구장을 찾을 수 있는 잠재고객들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신은 오승환을 관광 상품화해 한국 팬들까지 흡수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스포츠초치는 25일 ‘(한신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 내 한글 사이트 개설’, ‘오승환 야구용품의 개발’, ‘오승환의 이름을 딴 김치덮밥 등 메뉴 출시’ 등 한신이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 아이템을 소개했다.

●오승환 중계권 판매는 숨은 플러스알파(+α)

한신은 내심 오승환의 TV 중계권을 한국에 팔고 싶은 속내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초치는 “2011년 오릭스는 박찬호와 이승엽을 동시 영입해 홈경기 중계권을 한국방송사에 연 1억 엔(추정)에 팔았다”고 소개했다. 물론 마무리투수인 오승환의 보직상, 중계권 계약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부수효과를 오승환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속셈이 읽혀진다. 실제 이승엽이 2006시즌 후 요미우리와의 4년 총액 30억엔의 초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방송사의 중계권이 숨어있었다.

마케팅이든 중계권이든 일단 오승환이 일본무대에서 제 실력을 발휘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 역시 한신은 잘 알고 있다. 비싼 돈을 들여 영입한 선수인 만큼 관리에 전념을 다할 전망이다. 스포츠초치는 ‘스프링캠프와 정규시즌 내내 오승환을 위한 주거시설과 음식까지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 @matsni21

오승환 농친 다저스 “2년후에 보자”

다저스 스카우트 담당자 아쉬움 토로
“ML팀 중 다저스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포스팅에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쉽다. 2년 후를 기약하겠다.”

오승환(31)의 한신행이 결정되자 LA 다저스가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동안 한국의 특급 마무리투수인 오승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좋은 평가 속에 영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하면서 손을 쓸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다저스의 안병환 한국 스카우트 담당 슈퍼바이저는 25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승환이 미국 진출을 위해 포스팅에 나오면 다저스는 입찰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메이저리에서도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다저스는 가장 적극적인 구단 중 하나였다고 본다. 그러나 오승환이 메이저리 포스팅 대신 일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안병환 슈퍼바이저는 지난해 류현진이 다저스에 입단할 때 구단에 좋은 평가를 올려 대형계약이 이뤄지게 만들었던 인물

다. 그는 “이번에 오승환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구단에 올렸다. 류현진은 선발요원이지만, 한국에는 오승환이라는 좋은 볼펜요원이 있다고 보고했다. 다저스 구단도 오승환 영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런데 22일 오승환의 한신행이 결정되면서 다저스도 23일 오승환 영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저스는 오승환에 대한 관심까지 거둔 것은 아니다. 한신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후를 기약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그때는 까다로운 포스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오승환의 에이전트인 김동욱 스포츠 인텔리전스 대표는 25일 안병환 슈퍼바이저에게 전화를 통해 “그동안 지켜봐주셨는데 죄송하다”고 인사했다. 그러자 안병환 슈퍼바이저는 “좋은 대우를 받고 한신에 간 것을 축하한다”며 “2년은 잠깐이다. 다저스는 오승환이 일본에서 2년 동안 활약하는 것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2년 후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일본프로야구 한신은 오승환의 입단을 성적과 마케팅 측면에서 모두 호재로 삼기 위해 다각도로 공리를 거듭하고 있다. 오승환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메이저리 LA 다저스는 “포스팅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2년 후를 기약하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스포츠동아DB

방출 김선우 “두산서 은퇴할 줄 알았는데…”

코치 제안 거절…선수생활 연장 희망
두산, 헨킨스·오성민 등도 재계약 포기

김선우(36)가 두산 유니폼을 벗는다.

9개 구단은 25일 보류선수 명단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다. 보류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들은 내년 시즌 구단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방출을 뜻한다. 두산은 이번 보류선수 명단에서 투수 최고합 김선우를 제외시켰다.

메이저리리그 경력을 지닌 김선우는 2008년 총액 15억원(계약금 9억원·연봉 4억원·옵션 2억원)을 받고 두산에 입단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올리는 등 팀의 주축투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2012년 6승(9패)에 그친 데 이어 올 시즌에

는 5승6패, 방어율 5.52에 머무르며 내리막을 걸었다. 포스트시즌에선 선발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펜 요원으로 활약했다. 비록 구위는 예년에 비해 떨어졌지만, 김선우는 두산 투수들에게 라커룸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시즌 종료 후 전통이 된 ‘투수단합 MT’를 계획한 것도 바로 김선우다.

두산 김태룡 단장은 25일 “지나해부터 구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선우와 만나 코치 연수를 제안했는데, 본인은 선수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고민이 많았을 텐데 구단의 이야기를 듣고 ‘쿨하게’ 다른 팀에서 뛸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설명했다.

두산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김선우의 아쉬움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는 “마



두산 마운드의 리더 김선우는 구단의 코치 연수 제안을 거절하고 방출을 택했다. 두산 유니폼을 입고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험난한 길을 택했다. 스포츠동아DB

지막 은퇴는 두산에서 할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항상 많은 응원을 보내준 두산 팬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했다”며 팬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두산은 25일 김선우와 함께 김동길, 오성민, 외국인선수 데릭 헨킨스와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한화, 정근우·이용규 27일 입단식

한화는 27일 서울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정근우, 이용규의 입단식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입단식에는 김응용 감독, 주장 고동진 외에 정근우, 이용규와 친분이 두터운 김태균, 최진행도 참석한다. 한편 한화는 12월 1일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대전 구장에서 팬 사인 이벤트인 ‘2013 독수리 한마당’을 연다고 발표했다.

이병규 타격왕 등극 기념 배트 한정 판매

LG는 이병규(사진)의 2013시즌 타격왕 등극을 기념해 자필 사인 배트를 LG 트윈스 온라인숍(www.lgtwinsshop.com)을 통해 한정 출시한다. 이병규의 자필 사인이 담긴 배트는 이병규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규격으로 제작됐다. 판매금액은 개당 50만원이며 판매수익금은 야구 꿈나무 지원금으로 전달된다.

■NC가 외국인야수 2명 카드를 포기한 이유

“젊은선수들 성장할 기회 필요”

선발진 안정 위해 용병 4명중 3명 투수로



한화는 1999년 외국인타자 2명의 팻타를 앞세워 창단 후 유일한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다. 댄 로마이어가 45홈런 109타점, 제이 데이비스가 30홈런 106타점 35도루를 기록했다. 용병 둘이서 75홈런 215타점이라는 가공할 만

한 성적을 합쳐해 우승에 입맞춤할 수 있었다.

NC는 2014년 유일하게 외국인타자 2명을 활용할 수 있는 팀이다. 1999년의 한화와 다른 점은 외국인투수도 동시에 2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용병을 투수 2명과 야수 2명으로 구성할 경우 투타의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어 NC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스포츠동아 이효봉 해설위원도 “N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종욱과 손시현이 합류했고 외국인타자가 2명 가세한다면 타선만큼은 그 어떤 팀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NC는 내년 외국인선수 구성 방향을 투수 3명, 야수 1명으로 정했다. 선수수급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다. NC의 이 같은 선택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NC 배석현 단장은 “프리에이전트(FA)가 2명 왔다. 외국인 선수까지 야수 포지션에 2명을 쓰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현장과 함께 나눴다”고 설명했다.

NC 외야에는 이미 이종욱과 도루왕 김중호, 팀의 미래인 나성범이 있다. 지명타자는 팀의 정신적 리더인 이호준이다. 유격수 손시현을 고려하면 남은 자리 세 자리(1·2·3루수) 중 2곳을 외국인야수가 차지하게 된다.

김경문(사진) 감독의 고심도 컸다. 그리고 지금은 마운드에 더 집중할 때라고 판단했다. 김 감독은 “선발이 확실히 안정돼야 투타 모두 젊은 유망주들이 더 집중력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외국인선수 4명 중 3명을 선발투수로 뽑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LG 신진세력, 역대 연봉 찍나?

우규민·신정락·김용의 등 연봉협상서 기대감 솔솔

연봉협상의 계절이 찾아왔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구단은 LG. 11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가을야구를 펼친 LG 선수들 사이에선 내년 연봉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다. 신연봉제를 적용하는 LG는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엄청난 인상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올 시즌 처음으로 불박이 1군 선수로 성장해 많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LG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신진 선수들의 활약이 큰 힘이 됐다. 선발진에선 류제국(30), 우규민(28), 신정락(26)이 기대 이상의 투구를 했다. 올해 처음 LG 유니폼을 입은 류제국은 12승2패로 승률 1위를 거머쥐는 등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했다. 우규민은 선발로테이션을 꾸준히 지키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발 10승(8패)을 달성했다. 신정락도 선발 한 자리를 꿰차며 9승5패로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야수 중에선 김용의(28)와 문선재(23)가 확실한 1군 멤버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용의는 10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6, 34타점, 21도루를 기록했다. 1루수와 3루수를 오가면서도 실책을 단 1개만 범했을 정도로 수비 공헌도 또한 컸다. 문선재는 주로 백업 멤버로 뛰면서 타율 0.267, 25타점, 8도루를 기록했고, 5월 KIA전에서 갑작스레 포수 마스크를 쓰고도 팀의 승리를 이끄는 등 공수에 걸쳐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쳤다.

이들 5명 중 올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는 류제국으로 1억원이었다. 1억원 미만인 4명 중에 새로운 역대 연봉자가 탄생할 수도 있다. LG 구단 관계자는 25일 “신연봉제는 원세어와 구단자체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고가를 정해 다음 해 연봉의 기준점을 정한다”며 “선수들의 기대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큰 잡음 없이 협상을 마치고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트위터 @glyong11

美 SI “추신수 5년간 1억달러, 놀랄 일 아니다”

미국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24일(한국시간) ‘추신수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만약 추신수가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는 팀에서 5년간 1억달러(약 1062억원)의 조건을 제시받아도 놀랄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KBOP 이견일 대리, 김다은씨와 30일 결혼식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대표 이사 양해영) 이견일(31) 대리가 김다은(27) 씨와 30일 오후 6시30분 잠실 야행가모에서 결혼식을 올린다.